

## Ⅲ. 주체별 고령화 대책

### 1. 금융기관

- 은행들은 90년대 후반 이후 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 은행들은 정부가 「고령사회백서」<sup>11)</sup>를 처음 작성한 1996년 이후 고령자 및 연금 생활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실버 정기예금 및 연금 등 예금상품을 주로 취급
  - 해당 은행에서 연금을 수취(혹은 수취예약)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회원서비스(각종 우대상품, 연금 상담회, ATM 이용 수수료 면제 등)를 제공하는 은행도 다수 존재
    - \* 일부 은행에서는 단카이 세대를 위한 퇴직금 정기예금 및 시니어 세대<sup>12)</sup>를 대상으로 한 회원 서비스 등을 실시
  - 개인 연금보험 및 종신보험의 취급 외에도 신탁은행과 제휴하여 상속관련 업무(유언신탁 및 유산정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은행도 나오기 시작
  - 한편 신탁은행의 경우 개인 연금신탁과 같은 기존 상품 이외에 일본 최고재판소의 제안을 받아 ‘후견제도 지원신탁’<sup>13)</sup>과 관련된 상품을 2012년 2월부터 취급
- 또한 은행들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령자를 배려하는 영업점을 구축하고 라이프 플랜 및 사이클에 맞춘 종합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barrier free화의 추진, 유니버설 디자인 채택 등 고령자를 배려한 영업점을 구축

11) 고령화 사회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령화 사회 대책 기본법’(1995년 11월 8일 발효)을 토대로 작성된 연례보고서

12) 시니어 세대에 대한 정의는 통일적이지 않으며 50세/55세/60세/65세 이상 등 (경우에 따라 수급 신청 시기의 연령에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기도 함.)이 있음.

13) 후견제도 지원신탁이란 후견제도를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뒷받침해주기 위한 신탁으로, 후견인이 가정법원이 발행한 ‘지시서’를 토대로 피후견인의 현금 및 예금, 적금에 관해 신탁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를 말함(역자 주).